

Caption Of Real_time Ani Naissance

바케모노가타리 드라마 CD ~ 하쿠모노가타리 ~



「바케모노가타리」의 오리지널 드라마 CD인 「하쿠모노가타리」가 8월 4일, 아키바 각 상점에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제품정보에는 [「바케모노가타리」캐릭터 총출동! 청춘에 휘감기는 「하쿠모노가타리」, 니시오 이신 완전 신작 각본에 의한 전 100편의 학원 콩트!]

를 구가한 것으로, 「바케모노가타리」의 스탭 블로그에는 「이번 드라마 CD는 "니시오 이신 신작에 의한 완전 오리지널 각본"입니다. "바케모노가타리" 캐스트 총출동으로 펼쳐는 100편의 학원 콩트"입니다! CD의 녹음 용량이 딸릴 정도였어요. 71분의 매우 충실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드라마 CD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 등장인물 -

아라라기 코요미

센조가하라 히타기

하치쿠지 마요이

칸바루 스루가

센고쿠 나데코

하네카와 츠바사

오시노 메메

아라라기 카렌

아라라기 츠키히

오시노 시노부(제목 담당)

역자(또_탈퇴된코란) : 몇몇 트랙은 에피소드가 2개씩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합치면 모두 100개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또한 1번 트랙과 마지막 트랙은 노래입니다.

(캐릭터 송이 아닌, 기존의 졸업식 노래)

역자 추천으로는 '바케모노가타리 애니' 또는 '바케모노가타리 소설'을 다 읽고 듣는 것을 권합니다.

주의. 마지막 98번 트랙은 '츠바사 캣' 에피소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듣지 말아주세요
네타(스포일러)가 틀자마자 시작됩니다.

0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입학시험]

아라라기 코요미

: 우리 학교는 일단 지방이지만 꽤 이름을 날리는
진학 목적 학교니까 말아야 입학시험 꽤 어려웠었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배율오배(倍率五倍)정도 였나?
잊어버렸지만, 지방의 머리 좋은 애들이 모두 모이는 거야
쓰레기 같은 아라라기 군이 잘도 통과했구나

아라라기 코요미

: '쓰레기 같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풀 네임이 뭐였더라?
아라라기 고미?
[고미 : 쓰레기]

아라라기 코요미

: 코요미잖아!
'고미' 라고 말한 것도 쇼크고
네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쇼크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어머, 그래

아라라기 코요미

: 하치쿠지도 그렇게 발음을 꼬지 않는다고!
저기 말이야, 센조가하라
잊어버린 설정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의 나는 꽤 똑똑한 녀석이었다고?
아, 당시라고 한다면 입학시험 때, 가하라 너 아직 게와 만나기 전 아냐?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래, 맞아
사립이니까 시험일정도 빨랐으니까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럼 뒤틀려서 성격이 나빠지기 전의 네가 그 수험장에 있었다는 거구나

센조가하라 히타기

: 똑똑한 아라라기 군과 성격 좋은 내가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말은 지금 생각하면 왠지 농담 같은 이야기네

[합격 발표]

아라라기 코요미

: 합격 발표 보러 못 갔었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어째서?
병이라도 걸렸던 걸까나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무서워서
합격 라인이 아슬아슬 했었으니까
분명 여동생에게 보아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어

센조가하라 히타기

: 이 이상은 없을 겁쟁이네

아라라기 코요미

: 게다가 츠키히의 경우 당시 그 녀석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 건에 관해서 만큼은 겁쟁이라고 해도 반론 못 한다고
너는 합격 발표 당시 어떻게 했어?

센조가하라 히타기

: 평범히 보러 갔었어
당시의 나는 Super 나였으니까
아, 그래도 그러고 보니 분명 하네카와는 아라라기 군과 똑같이 합격 발표 보러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지

아라라기 코요미

: 뭐?
그 녀석이 무엇을 무서워하는 거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처럼집에서 공부했었데

아라라기 코요미

: 일관된 자세구나...

0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입학식]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 그때는 아직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너 말이야, 입학식 때 신입생 대표로 인사라든가 하지 않았어?

하네카와 츠바사

: 하지 않았어

이야기는 있었는데 나쁘게 보이기 싫어서 정중히 거절했어

아라라기 코요미

: 나쁘게 보인다니...

학교도 설마 거절당할 줄을 몰랐었겠지

0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교복]

아라라기 코요미

: 우리 고등학교 교복은 평범한 옛날식 세일러복이니까 뭐, 특별한 특징은 없지

하네카와 츠바사

: 최근엔 블레이저 코트가 들어서 반대로 이 평범한 모습이 특이하다는 것 같아 아라라기 군, 지금 교복이 어울린다고 일부의 평판이 좋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 발음을 꼬는 트윈 테일의 미니 소녀가 말하는 것뿐이잖아 게다가 그 녀석은 이 교복이 어울린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여름 교복이 어울리지 않다 라고 말했던 거라고 그냥 험담이잖아

하네카와 츠바사

: 그러고 보니 아라라기 군이 다녔던 중학교의 교복은 공립 치고는 특이했지? 여자의 원피스라든가 전국적으로도 별로 없을걸?

아라라기 코요미

: 음, 사실은 말이야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나는 역시 나름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으니 '사립 중학교로 갈까' 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

하네카와 츠바사

: 아, 카렌과 츠키히도 사립이었지 아라라기 군도 그 길을 택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구나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뭐, 그게...

시효(時效)가 지났으니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립 중학교의 여자 교복이 귀엽다는 이유로 난 사립 중학교의 시험을 보지 않은 거야

하네가와 츠바사

: 당시부터 그런 캐릭터였구나...

아라라기 코요미

: 사실은 지금도 교복 차림의 센고쿠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든!

하네가와 츠바사

: 본인에게는 말하지 마

0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반 배경]

센조가하라 히타기

: 나랑 아라라기 군은 어찌 되었건 3년간 계속 같은 반이었구나

아라라기 코요미

: 대화하게 된 것은 3학년이 되고 나서지만 말이야

그때까지 나는 정말 너에 대해서는 단순한 규중 아가씨라고 생각했었다고

센조가하라 히타기

: 단순한 규중 아가씨, 라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말투네

덧붙여서 나는 지금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1학년, 2학년 때부터 아라라기 군을 의식했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뭐, 그랬었어?

에이, 웬지 부끄럽잖아

센조가하라 히타기

: 아라라기 군이 보잘것없이 찌부러져 가는 모습을 즐겁게 관찰했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기분 나쁘잖아!

0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주간 휴일 이틀]

칸바루 스루가

: 우리 학교에서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다고 알았을 때 꽤 놀랐었던 것이다

아라라기 코요미

: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니까

즐거운 월요일, 단순한 2연속 쉬는 날일 뿐이니까

칸바루 스루가

: 정오까지의 수업이라는 것이 신선하다

아라라기 코요미

: 반휴일이라고도 말하지

칸바루 스루가

: 그나저나 아라라기 선배, 경축일은 1년에 며칠이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아니 미안, 몰라

세븐 적도 없어 어느 정도인데?

칸바루 스루가

: 15일이다!

아라라기 코요미

: 우와, 꽤 있구나

1년 중에 2주나 쉬는 건가

칸바루 스루가

: 그리고 일요일의 수가 365일 중에서 딱 52일 정도

합계하면 1년에 67일 정도의 휴일이 일본국민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봄과 여름 그리고 겨울 방학이 있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것을 들으니 토요일에 쉬는 건 너무 쉬는 거구나

0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테스트]

아라라기 코요미

: 테스트!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겠지요!

하네카와 츠바사 씨, 나이스한 발언 부탁드립니다!

하네카와 츠바사

: 뭐야 그 행동...

아라라기 코요미

: 뭔가 있을 거 아냐?

테스트에 거는 마음가짐이라든가

하네카와 독특의 철학이라든가!

하네카와 츠바사

: '부주의로 말미암은 실수' 라는 것을 동경하고 있어

아라라기 코요미

: 나이스!

0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문과 이과]

하치쿠지 마요이

: 확실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아라라기 씨
아라라기 씨는 이과겠죠?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아 응, 맞아 말하지 않았었나?

나랑 센조가하라 그리고 하네카와 3인 모두 이과야

하치쿠지 마요이

: 뭐, 그렇지 않으면

센조가하라 씨와 아라라기 씨가 3년간 같은 반이라는 것은 이상하겠죠

하네카와 씨와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던 것도

인원이 적은 이과 반에 의한 필연이었다는 것인가요

잘되었네요, 아라라기 씨 수학만은 할 수 있어서

아라라기 코요미

: 칸바루는 어디였더라?

하치쿠지 마요이

: 그분은 체육계겠죠

아라라기 코요미

: 너는 분명 문과겠구나

하치쿠지 마요이

: 저는 예쁜과예요

아라라기 코요미

: 네가 예쁜과라면 나는 초식(草食)과라고!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 이상의 육식과 남자가 있나요!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걸 말하면 칸바루는 그거라고?

부식(腐食)과 여자라고

하치쿠지 마요이

: 쓸데없이 제대로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 문과라도 했을지도 모르지

0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국어]

아라라기 코요미

: 그래도 역시 국어는 잘 못하겠어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 수학 말고는 전부 못 하잖아요

아라라기 코요미

: 국어를 가장 못 한다고

한문은 그렇다 쳐도 고전은 완전 이해 불능이야

하치쿠지 마요이

: 흠, 그러신가요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러고 보니 너는 일본어 프로였지?

하치쿠지 마요이

: 일본어와 국어도 또 다른 거지만 말이죠

1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수학]

센고쿠 나데코

: 코요미 오빠는 왜 수학만 특기야?

아라라기 코요미

: 글썄...

전생이 피타고라스였던 게 아닐까?

센고쿠 나데코

: 맞아, 분명 그럴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너는 나한테 태클을 걸어주지 않는구나

센고쿠 나데코

: 전생이 피타고라스라...

그럼 장래는 의사님이겠네!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거 좋네

센고쿠 나데코

: 그럼 나데코의 전생은 나이팅 게일!

나데코는 간호사가 될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뭐가 '그럼' 인지 전혀 모르겠다만?

1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사회]

하네카와 츠바사

: 난 아라라기 군이 제일 못하는 과목은 국어가 아니라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건 뭐야?

아라라기 코요미

에게는 사회상식이 결여 되어 있다든가 사회부적응자라든가 그런 의미?

하네카와 츠바사

: 아니야, 왜 그런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 거야

평범하게 암기과목이니까, 아라라기 군 암기과목 잘 못하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교과서를 완전히 외우는 너나 센조가하라랑 같이 말하면 그거야 내 기억력은 유감이지만

하네카와 츠바사

: 뭐 마음만 먹으면 세계사라던가 일본사의 답도 공식으로 꼬집어 낼 수 있지만 말이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런 경지에는 도달하고 싶지 않아!

1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영어]

아라라기 코요미

: 일본어에는 이렇게도 외래어가 보급되어 있는데 왜 정작 영어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되지 않는 걸까

칸바루 스루가

: 하지만 아라라기 선배 보급되어 있다고 해도 그 외래어의 의미를 정확히 부족함 없이 설명할 수 있느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아, 그런가

확실히 외래어는 뉘앙스가 애매해지니까 말이지 일본어로 번역하라고 해도 번역할 수가 없어

칸바루 스루가

: 슈플레히콜

아라라기 코요미

: 아, 번역 못 하겠어

칸바루 스루가

: 바이엘

아라라기 코요미

: 모르겠네

칸바루 스루가

: 카테텔

아라라기 코요미

: 아, 안돼 안돼

칸바루 스루가

: 메르헨

아라라기 코요미

: 전혀 우리!

칸바루 스루가

: 뭐, 지금 것은 모두 독일어이지만...

1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과학]

아라라기 코요미

: 무엇보다 의외인 것은 말이지

'수학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과학도 잘하겠지!'

'못 한다는 건 땡땡이를 치고 있다는 거야!'

라는 말투의 말 듣는 거지!

하치쿠지 마요이

: 정말이네요!

아라라기 씨에게 과학이라니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무리에도 정도가 있지요!

수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바라다니 어리광이네요!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어요!

아라라기 코요미

: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건 기쁘지만

하지만, 하치쿠지...

유감이지만 나에 대한 험담이 되고 있어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는 과학은 여자아이 이름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고 있죠?

[주: 과학은 발음상 리카]

아라라기 코요미

: 바보 같은 망상이야!

하치쿠지 마요이

: 물리도 화학도 생물도 모두 여자아이 이름이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건 병이야...

1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체육]

아라라기 코요미

: 미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네카와, 하나만 가르쳐 줄래?

하네카와 츠바사

: 괜찮아, 원데?

아라라기 코요미

: 창작댄스란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아, 침묵이다

하네카와 츠바사

: 그게 말이지, 많이는 말 못 하겠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하게 되어 버릴 바에는 체육복은
부르마를 입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느낌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그 정도까지인가...

하네카와 츠바사

: 트라우마밖에 되지 않아...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옛날엔 부르마를 입고 게다가 창작댄스도 했었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트라우마구나...

1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보건체육]

칸바루 스루가

: 보건체육이라고 하다면 바로 나!
안녕!
내가 칸바루 스루가 다!

아라라기 코요미

: 역시 너나...

칸바루 스루가

: 보건체육이라는 말이 이미 야하다고 생각해

아라라기 코요미

: 특이한 병이구나

칸바루 스루가

: 내가 야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베스트 3

3위 사춘기!

2위 성장기!

1위 반항기!

아라라기 코요미

: 보건체육 이야기를 해!

1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음악]

하네카와 츠바사

: 음악이라고 해도 말이지

우리 학교 예술계의 수업은 전반적으로 약하지

아라라기 코요미

: 응,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지

애초에 음악실이 이미 없잖아

하네카와 츠바사

: 일단은 있기는 있어

방음설비가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고...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런 거 음악실도 뭐도 아니야

그냥 넓은 방이야

하네카와 츠바사

: 피아니카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응?

하네카와 츠바사

: 초등학교 음악 이야기가 되지만

피아니카는 악기로서 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완성도가 높다고 할까

하지만 초등학생 저학년의 수업에서 쓰이는 탓에

이상하게 초보용 악기 취급당하는 게 안타깝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렇네, 리코더 같은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이라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평가가 높은 게 당연한데 말이야

하네카와 츠바사

: 다음에 모두 피아니카 연주회라도 열어볼까?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동의한 직후에 이런 걸 말하는 건 좀 뭐하지만
묘하게 배덕적인 그림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그만둘래

1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서예]

아라라기 코요미

: 칸바루, 너 말이야
원손잡이인데 그렇게 붓대 둘둘 감게 되어서 칠판에 글 쓸 때 라던가 어떻게 해?

칸바루 스루가

: 보시는 대로, 오른손으로 쓰고 있다

아라라기 코요미

: 쓸 수 있어?

칸바루 스루가

: 완전히 무리다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글자밖에 못 쓴다

아라라기 코요미

: 아, 힘들겠구나

칸바루 스루가

: 게다가 원래 왼손으로써도 엉망인 글자밖에 못 썼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아라라기 코요미

: 과연
그러고 보니 하네카와는 글자 엄청 이쁘지?

칸바루 스루가

: 그것보다 그 사람은 오른손으로 써도
왼손으로 써도 완전히 글자가 비슷하다고 해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건 대단하지만,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칸바루 스루가

: 오른손으로 공부하다가 지치면 연필을 왼손으로 잡고 쓴다든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양쪽 손 모두 글자를 잘 쓰게 되었다는 거 같아

아라라기 코요미

: 공부하다 지치면...
쉬라고!

1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미술]

센조가하라 히타기

: 나 사실은 그림 잘 그려

아라라기 코요미

: 안 물어봤다만?
옴, 너 그림 그릴 수 있어?

센조가하라 히타기

: 응, 그림의 구대(具代)가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은 은퇴 기미가 보이지만
중학시절에는 이래 봐도 꽤 붓을 놀렸었어
칸바루를 그려 주기도 했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아, 칸바루가 농구에서 대활약하는 모습을?

센조가하라 히타기

: 예술이라고 하면 알려나

아라라기 코요미

: 역시 벼은 그림이냐!

센조가하라 히타기

: 내가 아티스트고 칸바루가 누디스트
발할라 콤비야

아라라기 코요미

: 싫은 콤비다...

센조가하라 히타기

: 거짓말이야

1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가정과]

칸바루 스루가

: 아라라기 선배!

그게, 센조가하라 선배의 요리 실력 말이다만...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별로 못 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단지 맛을 내는 게 꽤 독특해서...

어쩔 수 없잖아?

미각은 꽤 성장해 온 환경에 따르니까 말이야

칸바루 스루가

: 확실히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가정의 맛이란 게 있는 건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런 의미에서 너는 장래 유망하다고!

네 할머니의 요리는 확실히 말해서 최고야!

솔직히 좀 결혼하고 싶다고도 생각해

칸바루 스루가

: 나랑!?

아라라기 코요미

: 할머니랑!

칸바루 스루가

: 아라라기 선배, 확실히 제 할머니를 수비 범위에 넣는 건 그만뒀 주지 않겠나?

아라라기 코요미

: 수비범위가 아니야

스트라이크존이지!

칸바루 스루가

: 공(攻)의 자세군!

[攻 : 덮치는 사람]

2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교사]

아라라기 코요미

: 우리 학교의 선생님은 대체로 졸업생이라더라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런 것 같아

아라라기 코요미

: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지금 다니는 학생 중에서도 장래를 보아

나오에츠 고등학교의 교편을 잡을 녀석이 나타날 거란 거지
하네카와가 담임이라면 최고일 텐데 말이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이미 그 아이, 현 시점에서 그림자 담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저번에는 양지의 담임이라고 불렸어

센조가하라 히타기

: 양지의 담임이라...

그건 이미 담임인 거 아냐?

[그림자와 양지는 반대 개념]

2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등하교]

아라라기 코요미

: 나는 자전거 통학이지만 칸바루는 도보...

...할까, 달려서 통학하고 있지?

역시 그건 트레닝도 겸하는 거야?

칸바루 스루가

: 뭐, 그런 거지만...

하지만 다른 사정도 있다

아라라기 코요미

: 다른 사정?

칸바루 스루가

: 나는 자전거에 타지 못하는 거다

아라라기 코요미

: 정말로!?

칸바루 스루가

: 아니, 그게...

탄 적 없는 인간에게는 절! 대로 탈 수 없는 거라고?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칸바루 스루가

: 그런 광마른 타이어 둘을 나란히 세워서

게다가 모든 체중을 떠맡기고 발을 회전시키는 거라고!

너무도 무서워!

아라라기 코요미

: 그렇게 말을 들으니 어려울 것 같지만...

칸바루 스루가

: 탄다면...

보조 고리가 필요하겠어

아라라기 코요미

: 배덕적인 모습이잖아

2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부활동]

아라라기 코요미

: 부활동이라고 해도 우리는 칸바루 말고는 대체로 귀가부였으니까
센고쿠도 귀가부인 것 같고

아, 그래도 가하라는 중학교 시절에는 육상부였던가?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래, 맞아

잘도 알고 있구나

뭐야, 너

내 팬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불쾌한 맞대답이다!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게 아니면 스토커?

기분 나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 줄래?

아라라기 코요미

: 나는 너의 반 친구라고

센조가하라 히타기

: 어머, 그래?

몰랐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너, 내 팬이 아니라 해도 너무 아니잖아!

센조가하라 히타기

: 육상부...

분명 전문은 단거리였어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종목은 단거리가 아니었지만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뭐?

그럼 네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종목은 뭔데?

센조가하라 히타기

: 창던지기

아라라기 코요미

: 무서워!

2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방과 후]

아라라기 코요미

: 지금이 돼서야 나, 방과 후에 공부만 하고 있다만
그렇게 생각해보니 2학년 때라든가 자신이 학교 끝나고
무얼 하고 지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나 많은 방대한 시간을 나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을까
카렌, 츠키히
나, 작년에 지금쯤 뭐 하고 있었어?

아라라기 카렌

: 방과 후는 대체로 오빠는 나를 괴롭히며 놀았다고!

아라라기 츠키히

: 맞아, 나도 괴롭힘 당했었어

아라라기 카렌

: 오빠가 공부하게 되고 나서 가장 다행이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니까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그래 그렇구나, 그랬었어!
그렇다면 너희, 나에게 좀 더 감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라라기 카렌

: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라라기 츠키히

: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2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사복]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의 사복이 보고 싶어!

하치쿠지 마요이

: 저기...

그걸 저한테 말한다 해도...

아라라기 코요미

: 이런 거 너한테 밖에 말 못한다고!
그 녀석 언제나 교복인걸
정말 지금에서는 나, 하네카와에 한해서는
알몸보다 사복이 보고 싶을 정도야

하치쿠지 마요이

: 그런 걸 말하기 전에 아라라기 씨?
자신이 입은 사복의 비참한 센스를 어떻게 좀 해주라고요

아라라기 코요미

: 비참!?
내 사복이!?

하치쿠지 마요이
: 어쩌면 하네카와 씨도 사복이 위험할 수 있겠군요
인간은 하나라도 결점이 없으면 귀여움이 없으니까요

아라라기 코요미
: 사복이 위험한 하네카와...
한번 보고 싶어!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의 하네카와 씨에 대한 사랑은 무한인 거군요

2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친구]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 저 들었다고요!
분명 친구라는 개념에 한해서는 아라라기 씨는 일견이 있으셨죠?

아라라기 코요미
: 그만뒤, 젊은 혈기의 소치(所致)를 꼬집어내지 말아줘

하치쿠지 마요이
: 그러지 말고 말해버려 주세요!
뽕내면서 이야기를 펼쳐 주세요!
정말이지 듣고 싶네요!
어떤 명언을 입에 담으셨더라?
어떤 신념을 갖고 계셨던 것에 의해서 아라라기 씨는 친구를 만들지 않으셨더라요?

아라라기 코요미
: 친구는...
필요 없다...
친구를 만들면...
인간강도(人間強度)가 떨어지니까
[주. 키즈모노가타리 관련 내용, 친구를 만들면 인간적으로 약해지니까, 즉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친구가 상처 입으면 자신도 상처 입어버리고, 친구가 슬프면 자기도 슬퍼진다. 말하자면 약점이 늘어난다는 것. 그건 인간적으로 약체화라는 아라라기의 신념]

하치쿠지 마요이
: 너무 웃잖아!
옆구리가 아파요!
아라라기 씨도 쓰라려요!
[이타이 : 아프다, (마음이) 쓰라리다]

아라라기 코요미
: 멋진 말 했다고 생각지 말라고!

2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휴대전화]

아라라기 코요미

: 휴대전화는 언제부터 갖게 되었어?

하네카와 츠바사

: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아라라기 코요미

: 나도 그래

하네카와 츠바사

: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

아라라기 코요미

: 칸바루에 한해서는 매우 최근이야

그 녀석 바보니까

나랑 통화하기 위해서만 휴대전화를 샀어

하네카와 츠바사

: 선배에게 잘 따르는 후배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그리고 보니 센고쿠가 지금 부모님과 교섭 중인 것 같아

휴대전화 갖고 싶다고 말이야

그것도 내가 이유라든가 하지

하네카와 츠바사

: 그건 좀 웃을 수 없어...

2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문자]

하네카와 츠바사

: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자기도 모르게 버튼을 더 눌러버려서 목적의 자음과 모음을 지나치는 경우 없어?

'ㅅ' 을 쓰고 싶었는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버려서 'ㅎ' 가 되어버린 것 같이 말야

[주. 우리나라식으로 의역, 천지인 기준]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있지만

귀찮지 그거, 또 버튼을 연타해야만 해서

안 그래도 열을 받은 상태인데

또 지나쳐버린다고 해서 말이야

하네카와 츠바사

: 그럴 경우는 말이지 별로 또 연타하지 않아도 '리턴' 버튼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라라기 코요미

: 뭐?

하네카와 츠바사

: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기능!

아라라기 코요미

: 정말이다!

그것보다도 이거 '나' 던가 '니' 같은 것의 합성 모음도 매우 간단히 쓸 수 있잖아!

하네카와 츠바사

: 예이!

아라라기 코요미

: 너는 뭐든지 알고 있구나

하네카와 츠바사

: 뭐든지 알고 있지는 않아, 아는 것만!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런데 어째서 이런 편리한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지?

하네카와 츠바사

: 뭐, 결국은 익숙한 것의 문제로 버튼을 연타하는 쪽이 빠르니까 일까나

아라라기 코요미

: 엄지족으로 진화한 거냐!

2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아르바이트]

아라라기 코요미

: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까 신경 쓴 적 없었다만

우리 학교 알바해도 괜찮았나?

하네카와 츠바사

: 기본적으로는 안 되었을 거야

학교의 허가를 받으면 OK 정도의 허용치였다고 생각한단만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러고 보니 센쥬가하라가 오시노에게 사례금을 주려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었지

하네카와 츠바사

: 그건 그럴 수도 있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는 알바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

하네카와 츠바사

: 아직 나는 사회를 위하여 일할 정도의 가치가 자신 속에 품고 있지 않을까나

아라라기 코요미

: 마음의 뜻이 너무 높아!

하네가와 츠바사

: 군이 말하자면 아라라기 군의 가정교사는 알바 같은 느낌이지만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돈은 지불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지

하네가와 츠바사

: 돈보다도 소중한 것을 잘 받고 있어!

2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텔레비전]

아라라기 코요미

: 너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칸바루의 집은 모두 합쳐서 TV가 20 대 정도나 있다고

깜짝 놀랐어

어질러질 대로 어질러진 그 녀석 방에도 이미 TV가 3 대나 있던걸!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 아이 돈의 씬씀이가 이상한 거야

일본의 경제불황이 해결된다면 그 아이 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아라라기 코요미

: 부럽다면 부러울 정도야

우리 집은 TV가 거실에 한 대밖에 없으니까

여동생들이랑 언제나 채널싸움이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방에 TV가 있다니 사치스러워

아라라기 코요미

: 뭐, 그럴지도 모르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우리 집은 TV가 한 대밖에 없기는커녕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3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라디오]

아라라기 코요미

: 수험공부에 몸을 담고고부터 또 라디오를 듣게 되었어

라디오는 수험공부의 친구지!

하네가와 츠바사

: 뭐, 어중간한 공부는 사실 그만두는 편이 좋지만 말이지
특히 청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이니까

아라라기 코요미

: 그래?

하네가와 츠바사

: 응, 사실 인간은 시각보다도 청각 쪽에
무게를 두고 일을 판단하고 있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렇구나
그렇다면 교과서의 녹음테이프를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자막 영화를 보고 있는 편이 수험 공부로서는 효율적이라는 건가

하네가와 츠바사

: 아무리 봐도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지

3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체육복]

칸바루 스루가

: 부르마 이야기인가!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야!
그런 의류는 이제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

칸바루 스루가

: 아라라기 선배
그렇게 모두 부정할 건 아냐
입어보면 알 테지만 그 정도 운동에 적합한 옷도 없는 거다!
다리도 시원하고 꽤 움직이기 쉽다고!

아라라기 코요미

: 입어보면 안다고 해도...
내가 입어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변태성뿐이라고...
뭐, 원래 그건 여자가 운동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사상을 기초로 설계된 옷 같은 거니까 말이지

칸바루 스루가

: 결국 인간, 알몸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런 결론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않아!

3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수영장]

아라라기 코요미

: 우리 학교 수영장 없지?

칸바루 스루가

: 어쨌든 설비에 투자하지 않는 학교야

아라라기 코요미

: 따라서 학교 수영복도 존재하지 않지
너에겐 유감인 이야기겠지

칸바루 스루가

: 정말이야!
체육수업의 3대 로망이 멋지게 짓밟히고 있어!

아라라기 코요미

: 3대 로망?

칸바루 스루가

: 3대 로망!

아라라기 코요미

: 들을 수 있는 만큼은 들어줄게, 말해봐

칸바루 스루가

: 그 첫 번째, 수영복을 입고 통상수업
그 두 번째, 수영복을 입고 하교
그 세 번째, 알몸으로 수영장!

아라라기 코요미

: 혼자서 해!

칸바루 스루가

: 해도 되는 건가?

아라라기 코요미

: 하지 말아줘...

3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싸움]

아라라기 카렌

: 화재와 싸움은 나의 꽃!
아라라기 카렌에게 뭐든지 물어봐!

아라라기 코요미

: 너의 선전문구가 무서워!
네 어디가 내 동생이란 거야?

아라라기 카렌

: 전부가 오빠의 동생이야!
자, 오빠 아무거나 물어봐 줘
개인레벨의 말싸움부터 학교레벨의 항쟁까지!
싸움라면 내가 모르는 게 없어!

아라라기 코요미

: 내가 너를 모르겠어...
그럼 질문!
내 지인에 틈만 나면 스테이플러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수끼끼의 인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아라라기 카렌

: 그건...
미리 리무버를 준비해두는 것 (리무버: 철심 빼는 장치)
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냐?

아라라기 코요미

: 찢리지 않을 방법을 알려줘!

3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체육대회]

칸바루 스루가

: 체육대회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나는 옛날부터 불만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왜 불만인데?
네가 참모습을 보여줄 장소 아냐?

칸바루 스루가

: 남녀차별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여자도 기마전이나 장대 높이기를 하고 싶다고!

아라라기 코요미

: ...하고 싶냐?
저런 경기는 남자라도 미묘하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난 안 할 거야

칸바루 스루가

: 상반신을 벗고 서로 만져주기를 하고 싶어!

아라라기 코요미

: 한기(寒氣)가 드는 걸, 너는...

3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별명]

아라라기 코요미

: 별명 붙여진 적은 거의 없어

하네카와 츠바사

: 헤에

아라라기 코요미

: 친구가 없었으니까

하네카와 츠바사

: 슬프네...

어째서 일부러 슬픈 정보를 추가한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센조가하라를 '가하라'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나지만
하네카와 너는 별명 붙은 적 없어?

하네카와 츠바사

: 초등학교때 '바사' 라고 불렸었었나...

아라라기 코요미

: '바사'?

하네카와 츠바사

: 날개의 바사 [날개[翼]의 발음은 츠바사(つばさ)]
바사바사라고 연속해서 말해보면 퍼덕이는 효과음 같고
표적을 맞히고는 있었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럼 이제부터는 하네카와를 바사라고 불러도 괜찮아?

하네카와 츠바사

: 아니, 그만둬

3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탈의실]

아라라기 코요미

: 탈의실이라고 해도 부활동 들어가 있지 않으면
탈의실 같은 건 쓸 일이 없지
체육 시간 때도 보통 교실에서 옷 갈아입어 버리니까 말이지

칸바루 스루가

: 탈의실이란 단어는 야해

아라라기 코요미

: 말 좀 맞춰줘!
말 좀 맞춰주라고!
어째서 너는 고집스럽게 자기주장밖에 안 하는 거야!

칸바루 스루가

: 아니, 그래도 어때?
아라라기 선배
탈의실의 '탈의' 라는 단어의 울림! ['코이' 를 이용한 언어유희]
좋아한다는 '호의'에 [호의, 탈의, 행위 전부 '코이']
행한다는 '행위'로
이제 뭐랄까 실로 브릴리언트하지 않은가!

아라라기 코요미

: 이 이야기는 패스야!

3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신체검사]

하치쿠지 마요이

: 신체검사라고 하면 아라라기 씨는 여자의 상태가
신경쓰여서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라라기 코요미

: 최악의 바람잡이구만!
안 해, 그런 이야기!
생각도 안 해!
애초에 내가 신경쓰여서 어쩔 수 없는 건 내 키라고

하치쿠지 마요이

: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변화가 없는 키라니
지금 와서 신경 써봤자 방법이 없겠죠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그게 알볼 수 없는 이야기라서 말이지
컨디션조절에 실패하면 신장이 줄어드는 일이 있다고

하치쿠지 마요이

: ...저한테 말하지 말아 주세요

3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출결]

센조가하라 히타기

: 어느 슛케츠?[출혈과 출결은 '슛케츠' 로 동음이의어]
피나는 거?

아라라기 코요미

: 출석 결석인 게 당연하잖아?
왜 쓸데없이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래도 아라라기군의 신체를 자르면 피가 나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왜 내 신체를 자르는 거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출석 결석을 말하는 거구나...
기분이 가라앉는 걸...

아라라기 코요미

: 어째서 기분이 올라갔던 거야...
그래서, 언제?
우리 중에 개근상인 녀석 있어?

센조가하라 히타기

: 없겠지
나는 병원 계속 다녔었고
하네카와도 몇 번 쉬었을 터
칸바루도 겨울에는 몸 상태가 안 좋기 일쑤니까

아라라기 코요미

: 뭐 겨울이 되면 그 녀석은 맨몸으로 지내는 일이 많이 지니까

센조가하라 히타기

: 아라라기 군은 땡땡이가 많았으니
개근상은커녕 잘못했으면 유급 위기였지

아라라기 코요미

: 칸바루랑 동급생이 되는 것도 생각해보면 즐거울 거 같지만
아라라기 선배...
아, 이제 선배가 아니구나
그럼 아라라기!
...같은 느낌?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게 뭐가 즐거워?

아라라기 코요미

: 칸바루에게 차갑게 다뤄지고 싶다는
의문의 욕구가 나에겐 있는 거야

3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학급폐쇄]

센고쿠 나데코

: 학급폐쇄라는 것이 부러워...

아라라기 코요미

: ...뭔가 좀 위험한 발언이네

센고쿠 나데코

: 학급붕괴랑 같은 정도로 부러워...

아라라기 코요미

: 센고쿠, 너...

4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보건실]

아라라기 코요미

: 보건실인가...

하네카와 츠바사

: 무슨 일 있어?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내가 장난꾸러기였을 적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그래서 생각났어

하네카와 츠바사

: 장난꾸러기였을 적이라니
역시 이렇게 바이올렌스한 나날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졸려졌을 때 몰래 숨어들어서 말이지
생각해 봐,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침대가 있는 곳이니까
가면실로 썼었어

하네카와 츠바사

: ...그럼 금방 들키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러니까 안 들키게 [도끼남이란 미국의 도시 전설 중 하나]
'도끼남 잘 부탁해요' 하고 [침대 밑에서 도끼를 갖고 살해한다는 것]
침대 밑에서 숨어서 잤어

하네카와 츠바사

: 주객전도네

아라라기 코요미

: 일어나면 몸이 아주 아파

4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도서실]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

너 자주 방과 후에 마을 도서관에 다니는 거 같던데 말이야
학교 도서관에는 안 가는 거야?

하네카와 츠바사

: 음...

아라라기 코요미

: 들어와 있는 품목이 불만이라든가?

하네카와 츠바사

: 불만이라기보단 좀 말하기 그런데...

아라라기 코요미

: 뭐야, 보기 힘들게 망설이네

말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도서위원회랑 안 좋으니까?

하네카와 츠바사

: 그게 아니고 입학하고 바로 가보기는 했는데...

장서가 전부 이미 읽은 책이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참 싫은 신입생이 왔구나!

4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여름방학]

아라라기 코요미

: 우리 지역 여름방학은 보통 다른 곳과 비교해서 짧지?

하네카와 츠바사

: 응, 일반적으로는 9월 1일부터 2학기가 시작하는 것 같아

그만큼 겨울방학이 기니까 괜찮지만 단지 8월 후반에

TV나 주간지 등의 화제가 맞지 않는 건 슬프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 시기만은 자신이 사는 곳이

정말로 일본인지 아닌지 의문스러워져

4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겨울방학]

아라라기 코요미

: 여름방학도 그렇지만 겨울방학도 기본적으로 한가하네
학교 안 가면 할 일 같은 거 없잖아, 완전
정말 이렇게 긴 방학에 모두 뭘 하면서 지내는 걸까?

하치쿠지 마요이

: 아니, 저기...
아라라기 씨...
아마도 모두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라라기 코요미

: 논다고?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는 잘 놀 줄 모르는 것 같군요

아라라기 코요미

: 무, 무슨 말하는 거야!
사람을 재미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
엄청 잘한다고, 노는 거!
노는 것의 왕이지
놀아주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고!
오히려 내 인생의 내 인생에는 노는 것밖에 없어!

하치쿠지 마요이

: 그것도 어떤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하지만 도대체 뭘 하면서
놀아주기도 하고 노는 거예요?
혼자서...

아라라기 코요미

: 혼자서라고 단정하지 마!

하치쿠지 마요이

: 아니, 그래도 아라라기 씨가 누구랑 노는 거예요?

아라라기 코요미

: ...여동생이랑

하치쿠지 마요이

: 제가 놀아 드릴게요!

4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봄방학]

아라라기 코요미

: 봄방학에 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

하네카와 츠바사

: 응. 패스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골든위크]

하네가와 츠바사

: 골든위크도 패스해도 될까?

아라라기 코요미

: 오케이...

4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피난훈련]

하치쿠지 마요이

: 피난훈련이라고 하면 아라라기 씨, 전설이 있었죠?

아라라기 코요미

: 응?

아니, 그 이야기는 전에 다른 곳에서 했으니까 됐어

하치쿠지 마요이

: 그 전설은 몇 번을 들어도 재밌다니까요!

오히려 몇 번이라도 듣고 싶어요!

뭔가 전에 뭔가...

갑자기 슬쩍 말해버렸으니까

듣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부탁해요 아라라기 씨!

제가 잘 장단 맞춰 드릴 테니까

꼭 말해주세요!

아라라기 코요미

: 뭐, 네가 그렇게까지 부탁한다면, 거절할 수 없지

하치쿠지 마요이

: 고마워요!

공부가 되겠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 와라!

하치쿠지 마요이

: 네

아, 그러고 보니 아라라기 씨
아라라기 씨는 피난 훈련에서 유명한 표어
[오.카.시]를 무슨 약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었죠?

아라라기 코요미

: 어리다, 귀엽다, 소녀! [오사나이, 카와이이, 쇼쥬]

하치쿠지 마요이

: 로리 멋지다!

4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통지표]

아라라기 코요미

: 통지표라고 하면 하네카와 씨, 역시 올 A 겠죠?

하네카와 츠바사

: 이상하게 말하지 마

아라라기 코요미

: 넌 모르겠지 D 과 F는 말이야
검은 잉크가 아닌 붉은 잉크로 찍힌다고

하네카와 츠바사

: 그건 싫어

아라라기 코요미

: 한번 통지표가 새빨갰던 적이 있어서 말이야
호러 영화 같았어

하네카와 츠바사

: 그건 무서워...

어라?

아라라기 군, 수학이 D이나 F인 적은 없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선생이 기세가 남아서 실수한 것 같아서
A인 수학이 빨간색으로 찍혀있었어
그건 확실히 굴욕이었어

4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마라톤 대회]

아라라기 코요미

: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치고는 보기 힘들게
마라톤 대회만은 우리 학교 왠지 화려하게 열리지?
1년에 4번 남자 10km, 여자 8km !
땀땀이치면서 걷고 있으면 뒤에서 회수차가 달려오지

센고쿠 나데코

: 꽤 들어가고 싶지 않은 학교네...

아라라기 코요미

: 입학 안내에는 쓰여 있지 않아!
센고쿠도 멍청하게 지망하지 말라고
막상 졸업할 때가 돼서 돌아보면 알겠지만
나오에츠 고등학교는 다니는 학생도 학교 자체도 뭔가 이상하다고

센고쿠 나데코

: 응, 알았어...
뭐, 무리해서 지망할 이유도 없어
나데코가 고등학생이 될 때는 코요미 오빠는 졸업해 버릴 거니까!

아라라기 코요미

: 응?

4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문방구]

센조가하라 히타기

: 내가 말해도 되려나?

아라라기 코요미

: 너 이외에 누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센조가하라!
문방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부디 마음껏 말해줘!

센조가하라 히타기

: 테이프, 풀은 참 편리해

아라라기 코요미

: 착한 애인 척하지 마!

4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머리모양]

아라라기 코요미

: 나오에츠 고등학교는 사실은
염색하는 거 금지하지 않고 있지?

하네카와 츠바사

: 시골이니까
원래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금지할 필요조차 없는 거겠지?
이상하게 금지하면 젊은이들의 반항정신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염색하고 싶어질 테니

아라라기 코요미
: 그렇지?

하네카와 츠바사
: TV에서 도시의 영상 같은 걸 보면 놀라잖아
머리카락색부터 머리모양
"엥,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질 정도야

아라라기 코요미
: 그래도 갈색 파마한 하네카와라든지 좀 보고 싶어

하네카와 츠바사
: 자기 머리를 파마하세요

5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반장]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는 옛날부터 계속 반장이었지?

하네카와 츠바사
: 응, 뭐 그렇지

아라라기 코요미
: 모두가 하네카와를 뽑는 건 알겠고
확실히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네카와 너 자신은 반장에
집착하는 이유 같은 게 있는 거야?

하네카와 츠바사
: 없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두가 나를 반장을 시키니까
하는 거 같은 느낌 일려나?

아라라기 코요미
: 과연...

하네카와 츠바사
: 아라라기 군도 부반장이잖아
해보면 하는 보람이 있는 일이지?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나는 하네카와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즐거워

5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불량]

아라라기 코요미

: 불량...은 없지, 우리 학교?

칸바루 스루가

: 풍기 문란 같은 게 없으니까 말이지
애초에 마을 전체의 치안 정도로 열쇠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래도 그러고 보니 확실히 아라라기 선배는
하네카와 선배로부터 불량 취급당하고
있는 것 아니었나?

아라라기 코요미

: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그 착각 자체는 계속되고 있다고
반대로 말하자면 그 덕분에 나는 하네카와가 신경 써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론 좋다는 거지

칸바루 스루가

: 아라라기 선배...
역시 조금 하네카와 선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5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계단]

센조가하라 히타기

: 학교 건물의 특수한 점은 뭐라고 생각해?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애당초 학교 건물이 특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생기 넘치게 나를 나무라지 마!

센조가하라 히타기

: 생기 없게 죽는 게 좋아

아라라기 코요미

: 생기 없게 라니 무슨 의미야!
그래서, 학교 건물의 뭐가 특수한데?

센조가하라 히타기

: 계단

아라라기 코요미

: 응?

센조가하라 히타기

: 학교 건물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뿐이잖아
그 스케일의 건물에선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라라기 코요미

: 듣고 보니 그럴네

센조가하라 히타기

: 이게 꽤 좋은 운동이 되는 거 같아서 말이야
사회에 나가서 살피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안 하니까 라는 설도 있는 거 같아

아라라기 코요미

: 뭐, 만약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나와 너는 위일 일도 없었겠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정말 고마운 계단님이야

[괴담] [주. 계단과 일본어 발음이 같음]

하네카와 츠바사

: 계단 다음은 괴담이야기인데...
우리학교 7대 불가사의 라던가 있었나?

아라라기 코요미

: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 리 없잖아
네가 모르면 아무도 몰라

하네카와 츠바사

: 그것보다 이미 아라라기 군은
7로는 부족할 정도의 불가사의를 경험했지

아라라기 코요미

: 괴담이 무섭지 않아 버렸지
지금이라면 하나코씨를 설득할 수 있겠다고

5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청춘]

아라라기 코요미

: 막연한 테마이지만
뭐, 역시 이런 건 어른에게 물어보자
오시노, 청춘이란 건 뭐야?

오시노 메메

: 청춘이라고?
아라라기 군은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구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청춘, 그것은 너희 자신이야
일부러 자세를 고쳐 생각할 테마가 아니야
10대의 귀중한 하루하루가

모두 청춘이라는 영화의 한 씬인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멋져...!

오시노 메메

: 혹은 야한 망상이지

아라라기 코요미

: 멋지긴 개뿔!

5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옥상]

아라라기 코요미

: 만화 같은 것에서는 자주 이야기의 스테이지가 되지만
건물의 옥상은 기본적으로 출입 금지지?

하네가와 츠바사

: 위험하니까 말이야
청소도 힘들고

아라라기 코요미

: 옥상에 불려서 고백받는 건 남자의 로망인데 말이지

하네가와 츠바사

: 수동적이구나
모처럼이면 불려서 고백해!

아라라기 코요미

: 뭐야, 용기 내도 괜찮다는 거야?

하네가와 츠바사

: 나 이외에

5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수업]

센고쿠 나데코

: 코요미 오빠, 수업 중이란 건 왜 그렇게 졸려지는 걸까?

아라라기 코요미

: 중학생 때는 뭔가 어쨌든 즐리지...
특pecially 밤에 안 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성장기라는 걸까나?

센고쿠 나데코

: 늘어뜨린 앞머리 덕분에
계속 자고 있어도 들키지 않으니까 좋지만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너 꽤 뽀뽀하구나

5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자리 바꾸기]

센고쿠 나데코

: 자리 바꾸기의 압박이란 건...
나데코는 힘들어

아라라기 코요미

: 자리 바꾸기의 압박?
그건 뭐야?

센고쿠 나데코

: 제비를 뽑기 전에는 그렇게 즐거워 보였던 모두가
대체로 유감스런 결과로 끝나버려서 교실 전체가
맥 풀린 분위기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아라라기 코요미

: 뭐, 확률적으로 실망으로 끝나는 학생이 더 많은 이벤트지
하기 전에 더 불타오르는 만큼 실망도 심해

센고쿠 나데코

: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척을 하고
제일 앞의 자리에 앉고 있어
일단 빼놓는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런데 너 시력은 얼마야?

센고쿠 나데코

: 좌우 양쪽 2.0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앞머리 자르면 5.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5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교과서]

아라라기 코요미

: 머리 좋은 녀석의 '이건 굉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하치쿠지 마요이

: 듣도록 하지요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라든가 센조가하라라든가

그 녀석들은 학년 초에 교과서를 다 받으면

일단 그날 갑자기 모든 페이지를 다 눈에 익혀 논대

하치쿠지 마요이

: 뭐 때문에…?

아라라기 코요미

: 일단 초기에 전체 흐름을 잡기 위한 걸려나?

마음가짐이 달라 그 녀석들은…

하치쿠지 마요이

: 그분들에게 있어선 예습조차도 복습인 건가요…

아라라기 코요미

: 절대 교과서에 낙서라든지 안 하겠지…

5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오락실]

아라라기 코요미

: 우리 마을에서 오락실이라고 하면

백화점의 장난감 가게에 있는

'그거' 라고 인식되어 버리지?

센고쿠 나데코

: 응, 칸바루 씨가 노는 거 자주 봐

아라라기 코요미

: 자주 보이지 말아야지!

정말 그 후배, 초등학교 꼬마애들에게 꽤 끼치지 좀 말지

센고쿠 나데코

: 아니야, 오히려 영웅이야!

게임 마스터 칸바루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것 같아

아라라기 코요미

: 왜 그 녀석...
그런 여기저기 장소에서 이름을 알리고 다니는 거야...?

5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발렌타인데이]

하치쿠지 마요이

: 발렌타인데이의 이야기라든가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라라기 코요미

: 뭐야, 사양하지 말라고
좋아하는 만큼 이야기하라고!
나는 듣는 역으로 있을 테니까

하치쿠지 마요이

: 왜 듣는 역으로 있는 건가요...
뭔가 하나 정도 발렌타인데이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학교생활에서는 뺄 수 없는 이벤트라고요

아라라기 코요미

: 없어, 대체 일본인이 정말로 발렌타인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인 것 같아
뭐랄까 이렇게 회사의 복잡한 인간관계 등으로 말이야

하치쿠지 마요이

: 세상살이는 참 힘든 이야기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 초콜릿만으로도 쓰구나...

6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이동교실]

센조가하라 히타기

: 1교시가 이동교실이었던 걸 깜빡 잊어버리고
혼자 반에 남겨져 버렸을 때의 충격...
무슨 일종의 따돌림인 줄 알았어

아라라기 코요미

: 응, 나도 경험한 적 있어

센조가하라 히타기

: 하마터면 교육부에 뛰어 들어 갈 뻔했어

아라라기 코요미

: 친구가 없으니까

이동교실의 정보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거꾸로 웬지 다음 시간은 이동교실이라고 생각해서
열쇠가 잠긴 시청각실 앞에서 멍하니 있기도 하고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미안, 그런 경험은 없어...

6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칠판]

센조가하라 히타기

: 하네카와는 칠판에 쓰는 글자마저 예쁘지만
그건 어딘가에서 연습하는 걸까?
분필이라고 하는 연필과는 전혀 다른 구조의 필기구로
지면에 대하여 수직인 면에
어떻게 평소와 같은 글자가 써지는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에게 의문을 갖지 마
그런 거 따위...
글자는 물론이고 컴퍼스를 쓰지도 않고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있는 녀석에게
무엇으로 쓰던지 말이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분하네...

아라라기 코요미

: 어째서 분한 건데?
그렇다면 너도 칠판에 글자 쓰는 연습 하면 되잖아

센조가하라 히타기

: 나에게 있어서 칠판은 쓰는 존재가 아니라
손톱으로 긁는 존재야

아라라기 코요미

: 연습도 실제도 하지 마!

6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장래의 꿈]

오시노 메메

: 아라라기 군은 말이야
장래의 꿈이라든가 있나?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아니, 이렇다 할 만한 건 없는데
굶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야 일은 하겠지만 말이야
지금 시대에 말이지

오시노 메메

: 뭐, 지금 시대건 옛날 시대건 꿈 따윈 꾸지 않는 게 현실적인가

아라라기 코요미

: 어른이 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꿈꾸게 해줘

오시노 메메

: 노력하면 꿈은 분명 이루어져!

아라라기 코요미

: 천박해!

오시노 메메

: 노력하면 꿈은 의외로 깨지지

아라라기 코요미

: 의미 깊어!
하지만 싫은 대사다...

6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러브레터]

하치쿠지 마요이

: 자, 이 이야기는 패스라는 걸로...

아라라기 코요미

: 멋대로 결정하지 마!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와는 전혀 연이 없는 단어지요?
러브레터라는 말은...
시기가 이른 항공 우편이 도착할 가능성이 더 크지요?

아라라기 코요미

: 그보다 이런 시대에 러브레터 그 자체가 드물잖아
문자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나?

하치쿠지 마요이

: 그래도 문자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요

아라라기 코요미

: 뭔데?

하치쿠지 마요이

: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번호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아라라기 코요미

: 오...

6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수학여행]

하네카와 츠바사

: 2학년 말이었던가?
수학여행에 갔던 거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네카와 츠바사

: 어째서?
즐거웠잖아, 고도 교토!

아라라기 코요미

: 친구가 없는 학생에게는 수학여행 따윈 바늘방석 위라고
자신이 있는 탓에 반 행동이나 숙박 공간의
열기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놀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으니...」

와 같은 거랄까?

「배게 싸움이나 진실 게임이라도 하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야」

와 같은 거랄까...

그런 분위기를 사무치게도 느꼈었어

하네카와 츠바사

: 아라라기 군...
그런 기분으로 5박 6일을 보냈었던 거구나...

아라라기 코요미

: 덧붙여서 센조가하라는 결석
현명한 선택이라고...

6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속제]

아라라기 코요미

: 속제를 하지 않아도 혼나지 않았을 때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하네카와 츠바사

: 선생님의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느낌이구나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런 거지

하네카와 츠바사

: 그럼, 거기서 분발해 노력하면 좋을 텐데...

아라라기 코요미

: 거기서 분발할 수 있는 녀석은 애초에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네카와 츠바사

: 아, 음...

그래도 나, 중학생 때 속제를 내도
받아주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어째서?

하네카와 츠바사

: 담임 선생님이 하네카와의 공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잘 되어 달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웬지 조금 상처를 입게 되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너는 어쨌든 센세이셔널하구나...

6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도시락]

아라라기 코요미

: 나의 슬픈 이야기를 듣게 해주지...

하치쿠지 마요이

: 가능하다면 사양하고 싶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 나의 인생에서 더욱더 친구가 없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에피소드...
당연, 점심 시간에 같이 밥을 먹을 대상도 없었지

하치쿠지 마요이

: 이미 그 시점에서 올 것 같은데요

아라라기 코요미

: 친구가 없는 것은 괜찮지만
혼자 도시락을 먹는 쓸쓸한 녀석이라고
생각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치쿠지 마요이

: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라라기 코요미

: 일찍 먹어버리기

하치쿠지 마요이

: 일찍 먹어버리기?

아라라기 코요미

: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은 먼저 먹었습니다
함께 먹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부디 느긋이 맛있게 드셔 주세요
...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하치쿠지 마요이

: 슬픈 자존심이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 센죠가하라가, 그런 나의 모습을
속으로 무진장 폭소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죽고 싶어져...
아, 적절한 시간이네
하치쿠지 밥 먹으러 가자

하치쿠지 마요이

: 통곡하면서 받아 드릴게요...

6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수험공부]

아라라기 코요미

: 수험공부...
내가 그야말로 지금 하는 것이다
조금 옛날만 하더라도 이런 나를 절대 생각지 못했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그전부터 비로소 했으면 했던 것의 결산이구만

하네카와 츠바사

: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늦다' 라는 것은 없어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럴까?

하네카와 츠바사

: 응, 아라라기 군에게는 내년도 내후년도 있으니까!
신념의 어떤 목표에 유통기한은 없는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좋은 말이지만, 하네카와...
올해 이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동기 부여에 역효과를 줄 뿐이야...

6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추천 입학]

아라라기 코요미

: 가하라는 대학을 추천으로 가겠다고 했다만
추천 입학은 어떤 시스템이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아라라기 군은 몰라도 일생 곤란하지 않을 시스템이네

아라라기 코요미

: 시스템마저 알려주지 않는 거냐고!?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보다 나도 잘 몰라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걸로 괜찮은 거야!?

6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합창회]

아라라기 코요미

: 합창회?

아...

내 트라우마다...

하치쿠지 마요이

: 어라, 어째서죠?

특별히 아라라기 씨가 트라우마가 많은 타입의 이벤트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아라라기 코요미

: 노래 부르는 게 싫어서 말이야
지휘자에 입후보했었어...
그리고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낙선되어 버렸어...

하치쿠지 마요이

: 도대체 뭘 하는 건가요...

아라라기 코요미

: 센조가하라는 이따도 대(大)폭소를 했었겠지...

7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담력 시험]

아라라기 코요미

: 담력 시험...
2학년 때에 반 이벤트로 학교에서 그런 게 열렸다고 하더라

하치쿠지 마요이

: '하더라' 라니...

아라라기 코요미

: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치쿠지 마요이

: 뭐, 센조가하라 씨도 똑같이 초대받지 못했겠죠?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센조가하라는 초대받았다는 것 같아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은 그럼 센조가하라 씨보다
반에서 존재감이 없던 건가요?

아라라기 코요미

: 내 휴대전화 번호를...
아무도 몰랐었다고...
아, 나도 초대받은 상태에서 거절하고 싶었던 말이야!

하치쿠지 마요이

: 일그러져 버렸네요...

7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쉬는 시간]

아라라기 코요미

: 쉬는 시간이 10분이라니 정말 짧지 않아?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하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네카와 츠바사

: 쉬는 시간이지 노는 시간은 아니니까 말이야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해

아라라기 코요미

: 그래도 쉬는 시간의 달인은 그 10분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잡지를 서서 읽고 오기까지 하니까 말이지
정말 놀란다니까

하네카와 츠바사

: 누구야?
쉬는 시간의 달인은...

아라라기 코요미

: 칸바루 달인!

7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출석번호]

칸바루 스루가

: 인간을 숫자로 관리하는 출석번호의 악(惡)
이라는 이론이 있다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있지

칸바루 스루가

: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농구의 백넘버 같은 경우
비인도적의 극한인 것이다!
"4번 마크!" 라고!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적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아?
나는 반 친구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만 말이야

칸바루 스루가

: 그건 너무한걸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말해두겠지만 말이지
반 친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고?

7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문화제]

하치쿠지 마요이

: 역시 그건가요?
문화제에 대해서도 아라라기 씨는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아니, 올해는 그거라고?
내가 부반장에 하네카와가 반장!
둘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즐겁지 않을 리가 없다고!
방과 후 교실에 둘만 남아서 닭살 러브라고!

하치쿠지 마요이

: 작년과 재작년은요?

아라라기 코요미

: 패스...

7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임간학교(林間學校)]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
매우 썰렁한 개그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라라기 코요미

: 뭐?

하치쿠지 마요이

: 센고쿠 씨밖에 웃지 않을 불리자드 급의 개그예요

아라라기 코요미

: 말해, 나는 너의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시답지 않은 것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일과적인 것으로 받아 주겠어

하치쿠지 마요이

: 임간학교를 미국에 있는 멋진 학교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라라기 코요미

: 어째서?

하치쿠지 마요이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학교예요!

아라라기 코요미

: 링컨 학교!?

[링컨과 임간은 동음이의어]

7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전학생]

아라라기 코요미

: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다 쳐도
고등학교가 되면 전학생은 그다지 없지

하네가와 츠바사

: 응, 특히 우리는 사립이니까
우리 학년에는 한 명도 없었어
우리 학교 편입 시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니까

아라라기 코요미

: 극악?

하네가와 츠바사

: 나도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럼 아무도 통과 못 하잖아!

7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학문]

하네가와 츠바사

: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아라라기 코요미

: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이네 (후쿠자와 유키치, 1835~1901)

하네가와 츠바사

: 이 어구는 지금 현재의 학력 사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라라기 코요미

: 그렇네, 그보다 내가 비난하고 있어
조금 그런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현실에 너무 괴리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사람 위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가와 츠바사

: 음, 하지만 후쿠자와 유키치는 애초에 원문(原文)에서
그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어째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라고 말이야, 의역이지만

아라라기 코요미

: 전해져 온 말이었어?

하네가와 츠바사

: 응,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어째서 현실적으로는 위와 아래가 생기는 것인가」
「위와 아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건 말이지, 학문을 수득했는가의 차이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문을 권장합니다」

아라라기 코요미

: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가 어긋나 전해졌잖아!

하네가와 츠바사

: 임팩트가 강한 부분만이 남아서 전해진 것이지
본의는 아니라고 생각해, 후쿠자와 선생님...

아라라기 코요미

: 공부나 하자...

7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독서]

아라라기 코요미

: 결국에는 가하라의 취미가 독서라는 것으로 괜찮은 거지?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래, 뭐 아라라기 군의 추측대로 누가 말을 거는 게 싫으니
굳이 여봐란듯이 책을 읽고 있었다
라는 이유도 있지
이름 붙여서 '책 베리어'

아라라기 코요미

: 음,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행위는
주위에 대한 '말 걸지 마!'
라는 의사표시니까 말이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헤드폰이라는 것도 있지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리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 일려나
나는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에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라는 알기 쉬운 어필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반(反)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것인가

센조가하라 히타기

: 다른 이야기지만, 저번에 말이야
또 하네카와에게 '젖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러니까 그 녀석에게 대항하려고 생각하지 마라니까
뭐야, 이번에는 왜 젖다는 기분이 든 건데?

센조가하라 히타기

: 시내에서 발견한 일요일의 그 아이
북밴드로 묶은 책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
너무 멋져서 낚이 나가 버렸어
북밴드는 어디서 파는 거야?
그런 거...

아라라기 코요미

: 나도 미국 드라마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 그거

센조가하라 히타기

: 나의 대(對) 하네카와 전쟁 지금까지 1 승 99 패

아라라기 코요미

: 1 승은 뭐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비.밀.이.야

7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계절 옷 갈아입기]

아라라기 코요미

: 계절 옷 갈아입기, 두근거리지!

하치쿠지 마요이

: 그 이야기, 저에게는 하지 말아주지 않겠나요?

아라라기 코요미

: 어쩔 수 없잖아!
다른 녀석들에게 말하면 변태 취급당해버리니까
정말로 곤란한 일이야
겨울옷에서 여름옷으로 갈아입는 여자에게
남자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하치쿠지 마요이

: 칸바루 씨라면 알아주지 않을까요?

아라라기 코요미

: 계절 옷 갈아입기에 관해서는 나와는 사상이 어긋난다고
나는 그 녀석과는 다르게 여름옷에서
겨울옷으로의 변화도 두근거리
여자의 더블 코트!
최고잖아!
여자의 두꺼운 옷에 맥 풀리지 않는 남자!
그것이 아라라기 코요미입니다!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는 그거네요
여자가 보면 아라라기 씨 정도로 쉬운 남자는 없겠군요

아라라기 코요미

: 뭐라고?

하치쿠지 마요이

: 아라라기 씨는 분명 계절 옷 갈아입기는 물론이고
여자가 가볍게 머리 모양을 바꾼 것으로 만으로도 두근거리죠?

아라라기 코요미

: 솔직히 말해서 두근거리!

하치쿠지 마요이

: 꾸미고 다니는 것에 보람을 느끼겠군요

7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체육관]

아라라기 코요미

: 체육관이라면 역시 너인가
칸바루

칸바루 스루가

: 뭐, 내가 되겠지
농구는 기본적으로 체육관에서 하는 거니까
옥외에서는 바운드가 바뀌어서 잘 드리블이 안 되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럼 체육관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칸바루 스루가

: 음, 그럼 아라라기 선배!
이런 이야기를 들어줘!
체육관의 지붕에 배구공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아라라기 코요미

: 아아, 천장 서브!
라고 쏘아 올린 거 말이지?
잇을 만하면 그 공이 떨어져 내려서 위험하다니까

칸바루 스루가

: 우리 학교의 체육관 지붕에는

내가 쏘아 올린 농구공이 다수 포진하고 있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건 위험한 걸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잖아!

칸바루 스루가

: 천장 슛을 짜내려고 했던 시절의 흔적이지
이런 이야기, 지금이니까 할 수 있지만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지금 하는 건 늦다고!

8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기상경보]

센고쿠 나데코

: 태풍의 계절
경보로 학교가 쉬는 날
기분이 업 되어버려!

아라라기 코요미

: 나는 점점 너란 녀석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센고쿠 나데코

: 아침 8시까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다면
폭우 속에서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돼
기분이 다운 되어버려...

아라라기 코요미

: 너 그거지?
매우 작은 걸로 무진장 행복해진다거나
무진장 불행해지기도 하는 스타일이니?

센고쿠 나데코

: 태풍으로 집의 창문이 부서져 버렸어
기분이 업 되어버려!

아라라기 코요미

: 업 된다고!?

센고쿠 나데코

: 태풍 중계에서 바다의 거센 정도가 별로야

기분이 다운 되어버려...

아라라기 코요미

: 미안, 너란 녀석이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

8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청소당번]

하네카와 츠바사

: 센조가하라는 청소당번 만날 땡땡이 치고 있지?

아라라기 코요미

: 청소당번뿐만 아니라

그 녀석 여러 가지 땡땡이치는데 능숙하다고
땡땡 게이지의 수치가 나와는 비교도 안 되지
지금 생각해보니 학기말의 대청소 타이밍에
언제나 그 녀석 병원으로 도망갔었지

하네카와 츠바사

: 청소가 싫은 걸까?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그건 아니야
공동 작업이 싫은 거겠지
섬세하달까 상당히 신경질적인 녀석이니까 말이야
청소는 오히려 좋아할걸?
집이라든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거든
아파트 주변까지 포함해서 먼지가 하나도 없어

하네카와 츠바사

: 칸바루 집에는 가면 안 되겠네

아라라기 코요미

: 발할라 콤비는 역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8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5월 병]

아라라기 츠키히

: 오빠, 5월 병에 걸린 적 있어?

아라라기 코요미

: 5월 병이라는 것의 정의도 문제지만
혹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버리는 것이 5월 병의 정의라면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1년 내내 5월 병이나 마찬가지야
너는 어떤데, 츠키히?
반 바꿀 때라든지 주눅이 들거나 하지 않아?

아라라기 츠키히

: 나에게는 마을 전체가 반이나 마찬가지로 거니까
멀리 이사 가지 않는 한 환경이 변하거나 하지 않아

아라라기 코요미

: 교우(交友)범위가 너무 넓잖아...

8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구기대회]

칸바루 스루가

: 한마디로 나의 차례구나!

아라라기 코요미

: 너, 농구 이외의 구기 종목도 할 줄 알아?

칸바루 스루가

: 고등학교에서 하는 스포츠라면 일단은 말이지

아라라기 선배는 구기는 어떠한가!

아라라기 코요미

: 보통 일려나

구기대회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진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야

아, 그래도 올해 구기대회는 즐거웠었지

칸바루 스루가

: 어째서?

아라라기 코요미

: 공연히 체육복을 입은 하네카와를 응원할 수 있었거든!

칸바루 스루가

: 아라라기 선배...

아무래도 그건...

8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연애]

아라라기 코요미

: 하치쿠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하치쿠지 마요이

: 싫어요

8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교무실]

아라라기 코요미

: 교무실에는 독특한 무서움이 있지

센고쿠 나데코

: 응, 그건 중학교도 똑같아

아라라기 코요미

: 완전 어른의 세계라는 느낌

센고쿠 나데코

: 응, 호출을 받아도 절대 가지 않아

아라라기 코요미

: 너는, 어른답고 양전할 뿐이지
결코 성실한 건 아니구나...

8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종례]

센조가하라 히타기

: 하네카와는 종례에서 자주 표창받고 있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래, 표창을 너무 받아서
지금 와서는 도대체 그 녀석이 어떤 이유로
표창받고 있는지도 잘 몰라

센조가하라 히타기

: 선생님들의 훈화 도중에 학생이 빈혈로
쓰러진다는 것은 자주 있는 이야기이지만
하네카와가 표창받는 도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이 쓰러져 갔는지...

아라라기 코요미

: 응, 신경 쓰였어

8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학급회]

센조가하라 히타기

: 우리 반에게는 학급회 같은 건 없어도 될 정도로 필요가 없지

아라라기 코요미

: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하네카와가 먼저 정리해두니까 말이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자동으로 자습 시간이 늘어나는...

반 친구로서는 어찌지도 못할 일이지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 자습용 프린트마져 만들어 오니까 말이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그 애의 성격을 학급회의 의제로 삼아야 하는 거 아냐?

8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봉사활동]

아라라기 코요미

: 너네 쉬는 날이라든가

자주 봉사활동 참가하고 있지?

아라라기 츠키히

: 응, 그보다 봉사활동은 파이어 시스템즈의 중요 활동 중 하나지

우리, 날뛰어 다니기만 하는 건 아니야

아라라기 코요미

: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나도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말이야

아라라기 츠키히

: 알리바이 만들기라고도 하지

평소에 선행을 베풀면 가끔 날뛰어도 귀여움을 받지

아라라기 코요미

: 너는, 속이 새까만 여동생이야...

89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소지품 검사]

아라라기 코요미

: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만

가하라, 너 소지품 검사라든가
어떻게 대처했었던 거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뭐야
고등학생이 문방구를 갖고
걸어 다닌다니 당연한 거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그 양이 너무 이상하잖아
들고 다니는 양이!

센조가하라 히타기

: 걱정하지 않아도 여자 고등학교도 아니고
치마 같은 건 조사하지 않는다고

아라라기 코요미

: 아, 그건 그런가

센조가하라 히타기

: 아, 그래도 무심코 원형 각도기가
발각되어 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서 그때는 역시 긴장되었지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했을 테니까

아라라기 코요미

: 그래서, 그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90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시험공부]

아라라기 코요미

: 시험공부에 대하여 이만한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하네카와, 밤새우면서 공부해본 적 있어?

하네카와 츠바사

: 없어

아라라기 코요미

: 철야는?

하네카와 츠바사

: 없네

아라라기 코요미

: 어째서...

하네카와 츠바사

: 밤은 졸리잖아?

아라라기 코요미

: 졸리지...

91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복도]

아라라기 카렌

: 복도에서 서서 벌을 받은 적이 있어

아라라기 코요미

: 정말?

이런 시대에?

아라라기 카렌

: 응, 지금 담임 선생님이 무척 엄해서 말이지...

무언가를 두고 왔을 때 복도에 세운다니 말도 안 된다고

책상 위에 섰던 적도 있다니까?

무진장 힘들었어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거, 힘든 건 뒤에 있는 녀석일 거라고?

너의 그 신장으로 책상 위에 섰다면

그건 너는 전구를 교환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

아라라기 카렌

: 뭐 아니, 오빠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을 거야

아라라기 코요미

: 어째서

아라라기 카렌

: 섰다고 하더라도 물구나무로 섰으니까!

아라라기 코요미

: 너, 그거 스스로 원해서 한 거지?

담임이 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레벨을 높인 거지!?

아라라기 카렌

: 나, 마조갈아?

아라라기 코요미

: 카리스마야...

92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여행]

하치쿠지 마요이

: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 어른입니다만

아라라기 씨, 친구들과 함께 여행이라든가 안 가나요?

아라라기 코요미

: 나한테 그걸 묻는 거냐...

너는 도대체 어느 만큼 잔혹한 거냐고...

하치쿠지 마요이

: 아니,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아라라기 할렘의 멤버를 끌어 드려서

해수욕이라든가 가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바다야!」 라면서

하자니까요

아라라기 코요미

: 아, 나 그러고 보니 바다를 본 경험이 없었구나

하치쿠지 마요이

: 어머

아라라기 코요미

: 바다 따윈 거짓말이야

라고 나한테 말하면 믿을걸

하치쿠지 마요이

: 어머머

아라라기 코요미

: 꼬맹이었을 적에 여동생들과 강에 놀러 간 적은 있지만 말이야

하치쿠지 마요이

: 강이 있으면 바다도 있을 거 아닌가요

아라라기 코요미

: 「강이야!」

하치쿠지 마요이

: 전혀 들뜨지 않는다고요!

93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고백]

아라라기 코요미

: 아, 그러고 보니 하네카와

지금 생각난 아무래도 좋을 얘기인데

고백받은 적 있어?

하네카와 츠바사

: 전혀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아라라기 코요미

: 있나 없나 대답해줘...

하네카와 츠바사

: 없어

아라라기 코요미

: 뭐...

정말 대답해 줄지는 생각 못했어...

하네카와 츠바사

: 곤란할 정도라면 묻지 말아줘

아라라기 코요미

: 죄송합니다...

94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게시판]

아라라기 코요미

: 시험이 끝나고 상위 30위까지의

순위표가 게시판에 붙여지기도 하잖아?

너라든가 하네카와의 이름이 짤하고 올라간다면 말이지

그런 건 역시 자랑스러운 거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 되어버리겠지만

대중 앞에 놀림감이 되어버린 듯해서 좋지 않지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럴겠지...

완전 개인 정보니까 말이야

센조가하라 히타기

: 99 문제를 맞춘 것이 알려지는 것 보다

1 문제 틀린 게 알려지는 것이 신경 쓰이는 법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아, 그런 거구나...

센조가하라 히타기

: 하네카와 성적을 보고 공부할 기분을 느낄 학생 따윈 없을 테니

차라리 하위 30 명을 까발리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아라라기 코요미

: 너무 엄격하잖아!

95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군것질]

하네카와 츠바사

: 군것질은 교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거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네...

하네카와 츠바사

: 더 자세히 따지고 들면 패스트 푸드점이나 카페에
고등학생끼리 가는 것도 교칙 위반이라고?

아라라기 코요미

: 뭐야 그거

성장하는 고등학생에게 배고파 죽으라는 거냐?

하네카와 츠바사

: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참으세요

집에 돌아갈 때까지가 통상 수업인 것이야

애초에 아라라기 군은 성장하고 있지 않지?

아라라기 코요미

: 심한 말을 들었다!

게다가 하네카와에게!

나는 일생 다시 일어설 수 없어!

하네카와 츠바사

: 흠혈귀라는 의미로 말한 거야

96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스토브]

칸바루 스루가

: 겨울 교실에는 스토브가 설치된다!

아라라기 코요미

: 도시의 학교는 난방 기구라면

이미 에어컨 같은 걸로 하겠지만 말이야

칸바루 스루가

: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스토브 쪽이 더 좋다!

아라라기 코요미

: 확실히 그 나근함을 좋지

칸바루 스루가

: 아니, 그 몸이 구워지는 느낌이 좋은 것이다!

아라라기 코요미

: 너무 극 마조라 공감을 못 하겠잖아!

칸바루 스루가

: 아, 지금 말 그대로 고기가 구워지고 있어!

구워져, 구워진다고!

불로 구워지고 있어!

아라라기 코요미

: 웰던이 되어버려라

97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체육창고]

아라라기 코요미

: 인연의 장소지

하네카와 츠바사

: 패스 (키즈모노가타리 관련)

98번 트랙

====번역 by 또_탈퇴된코란(<http://coran.co.kr>) &퍼블리카(<http://publica.kr>)====

[졸업식]

아라라기 코요미

: 그럼 마지막은 졸업식 이야기구나

정말 길면서도 짧았어

그보다 그냥 순식간이었지

아무리 말을 해도 전부 말을 못 한다고

100화로는 전혀 부족하다니까

하지만 졸업인가...

하네카와랑 떨어지게 되는 건가...

싫은데...

어떻게든 해서 하네카와에게 나의 두 번째 단추를 받아야 해!

(일본에서는 졸업식 때 단추를 주고받음)

하네카와 츠바사

: 하, 인간...

여전히 너는 글러 먹은 녀석이구냥

아라라기 코요미

: 하네카와?

아니, 블랙 하네카와!?

아니, 어째서?

왜 블랙 하네카와가 강림해버린 거지!?

내가 하도 글러 먹어서?

너무나도 출연이 많아서 하네카와, 화가 난 거야?

하네카와 츠바사

: 뭐냐, 너 몰랐던 거냐
하쿠모노가타리는 말이지냐
100번째의 이야기를 말하면
괴이가 출현한다는 요괴소환 의식이라는 거다냐
(하쿠모노가타리 = 百物語 = 백가지 이야기)

아라라기 코요미

: 아, 그랬었지...

하네카와 츠바사

: 그렇다냐

나온 것이 나서서 다행이다냐

너 이게 전성기의 괴이 죽이기가 [괴이 죽이기는 시노부를 의미]

나왔었다면 어쩔 셈이었냐

아라라기 코요미

: 아니, 그...

그렇다고 해서 네가 등장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이지

하네카와 츠바사

: 뭐, 우정 출연이냐

자잘한 건 신경쓰지마냐

아라라기 코요미

: 제대로 돌아갈 거지?

나의 하네카와를 제대로 돌려주기다?

하네카와 츠바사

: 주인이 언제부터 너의 것이 되었다냐

아라라기 코요미

: 아, 그래도 그렇다면 고양이

모처럼이니 이 하쿠모노가타리는 너의 그 명언으로 끝내자

하네카와 츠바사

: 냥?

그 명언이라는 것이 뭐냐?

아라라기 코요미

: 그거야 그거!

잊은 거야?

하네카와 츠바사

: 뭐냐

나의 머리가 나쁜 것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적당히 말하고

주인의 입으로부터 외설적인 말을 말하게 할 생각이냐!

아라라기 코요미

: 그만둬...

필사적으로 자제하는 것을 실행하게 할 계기를

나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뭐야, 정말 잊어버린 거냐고

어쩔 수 없구만...

그럼 알겠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사를 복창해줘

하네가와 츠바사
: 알았다냥

아라라기 코요미
: 나냐메냐냐쥬냐냐도노냐라비데
냐쿠냐쿠이냐냐쿠냐냐한냐냐다이
난냐쿠냐라베테냐가냐가메
(일종의 ‘강장 공장공장장’ 같은 것)

하네가와 츠바사
: 냐냐메냐냐쥬냐냐도노냐라비데
냐쿠냐쿠이냐냐쿠냐냐한냐냐다이
냐냐쿠냐라베테냐가냐가메

아라라기 코요미
: 귀! 여! 워!

번역&검수 - 또_탈퇴된코란 (<http://Coran.co.kr>)
번역 - 퍼블리카(<http://Publica.kr>)